



## [지속가능] 英 알라푸드, 유기농 부문 사업 확대 추진

### - 환경보존 및 동물복지 강화는 물론 유기농 유제품 생산 확대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알라푸드 영국지사가 유기농 부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알라푸드 영국지사는 향후 5년간 유기농 소매 및 식품서비스 사업 전반에 걸쳐 5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2억 7천만 리터의 유기농 유제품을 생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유기농 원유 생산 농가는 풍력, 태양열 등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오는 2028년까지 원유 1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감소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토질개선은 물론 젖소의 최소 방목일수를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등 동물 복지 기준도 강화했다.

업체관계자는 유기농 부문 사업 확대를 통해 환경보존 및 동물복지 강화는 물론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10월 18일자 >

## [마케팅] 캐나다, 유명 TV 프로그램 활용 우유 소비 홍보 나서

### - 우유 활용 레시피 소개 및 콘테스트 진행 등



캐나다 낙농업계가 자국산 우유 소비 홍보를 위해 유명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협력에 나섰다.

최근 캐나다낙농가협회(DFO)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이자 아마추어 제빵사들이 경합을 벌이는 '더 그레이트 캐나다인 베이킹 쇼'를 통해 캐나다산 우유 소비 홍보는 물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산 유제품을 활용한 베이킹 콘테스트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며 지난 시즌 준우승자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프로그램 방영 전 30초 분량의 홍보 광고를 송출할 예정이다.

협회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직접 요리 또는 베이킹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협력을 통해 엄격한 기준 하에 생산되는 고품질의 캐나다산 우유 및 유제품이 요리와 제빵에 훌륭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출처 : perishablenews.com, 10월 18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